



Original Article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and their Keywor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3-2006)

Kim, Jeung Im¹⁾ · Park, So Mi²⁾ · Park, Hye Sook³⁾ · Chung, Chae Weon⁴⁾ · Ahn, Suk Hee⁵⁾

-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ampus, Yeonsei University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gi College
4)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5)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최근 3년간의 논문분석(2004-2006년)

김증임¹⁾ · 박소미²⁾ · 박혜숙³⁾ · 정재원⁴⁾ · 안숙희⁵⁾

- 1)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2)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3) 가톨릭상지대학 간호과 부교수 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5)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was aimed to explore the major subjects and research theme and to classify characteristics of the key words in recent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Methods:** With survey design, whole 103 published papers during 2003-2006 were analyzed with structured analysis form;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ology, data analysis, and key words of the published papers were classified and extracted. Various theme was founded and classified to 9 domains. **Results:** Most of the research subjects were women. Eighty-eight percent of papers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83% chose convenience sampling and 69% used survey design, while experimental design was 29%. Key words were categorized 9 domains: demographic, health related concept, health behavior(intervention), sex-related, life event, disease, et al. Among 9 domains, health related concept, especially psycho-social topics such as

depression, anxiety, stress were mostly studied and then physiologic topics such as labor pain, fatigue, and menstrual symptoms. **Conclusion:** Most of the subjects were women and the most common domain studied was health related concepts i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And key words and topics were on women's health issues. We can conclude that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has published by her own philosophy.

Key words : Keyword, Research subjects, Topic

서론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1995년 세계적인 간호학계의 변화에 맞추어 '여성건강간호학회지'라는 새로운 학회지명으로 발간을 시작하여 1997년까지는 매년 2회씩을 발간하였고 2000년

투고일: 2007. 2. 14 1차심사완료일: 2007. 2. 22 2차심사완료일: 2007. 3. 5 최종심사완료일: 2007. 3. 1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Ahn, Suk He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unhwa 1-dong, Jung-gu,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24 Fax: 82-42-584-8915 E-mail: sukheeahn@cnu.ac.kr

부터는 매년 4회씩 발간해왔다. 이어 2003년에는 KoMed에 등재를, 2005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간호계의 대표적인 database인 미국 CINAHL에 등재되게 되었다.

한국 내 학문의 발전 및 대학 내 연구 성과의 인정범위가 더 강화됨에 따라 다른 학문의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간호 관련 학술지도 모두 더 인정받기 위한 수준향상에 노력해왔다. 이러한 학계의 변화의 한 예를 제시하면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이하 등재지라 칭함)일 경우 투고가 많이 이뤄지는 반면 아직 등재지가 되지 않은 학회지의 경우는 투고가 많지 않아 게재논문의 질을 유지하는 것과 정시발행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측면에서 여성건강간호학회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연구자들이 등재지에 투고를 할 때는 매우 신경을 쓰지만 아직 등재지가 아니었던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투고를 할 때는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투고논문은 적었으며 그 완성도가 낮은 논문이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 학회지의 정체성 유지 및 학회지의 질 향상이란 과제는 늘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논문 편수가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회지의 철학과 맞지 않는 논문은 과감하게 투고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학회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3심제도의 도입, 편집 및 출판위원들의 수차례 점검, 그리고 원어민에 의한 영문 편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 정시발행을 위해 투고기한 제시 및 출판간사의 도입을 하였다.

이와 같은 각박한 환경 속에서 여성건강간호에 맞는 논문 일지라도 다른 등재지에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들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술지별 특성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Yeom과 Park(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건강연구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5년간 3개 학술지(성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대한간호학회지)에서 여성 대상자들과 관련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총 377편이나 실렸었다는 점을 볼 때 각 학회지별로 특성과 철학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학회지에서 ‘여성건강’이란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에 관한 연구는 1972년 이후 출판위원이 중심이 되어 연구되어 왔다. 먼저 Koh, Koh와 Kim(1992) 등은 1972년부터 1991년까지의 논문을 여성건강, 어머니 역할 및 기타 임상관련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Koh, Jeong, Park과 Kim(1997)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논문들을 생애주기 관점으로 분류하였으며, Lee와 Park(1998)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자 중심으로 접근, 분류하였고, Yeom과 Park(2005)은 8개의

연구영역과 49개 건강문제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여성건강간호학회가 추구하는 특성을 유지하고 다른 간호관련 학술지와 차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투고논문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존에 출간된 논문들이 여성건강간호학회지가 추구하는 방향과 요구에 적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를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3월호부터 2006년 12월호까지 최근 3년간의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 결과는 현존하는 여성의 건강문제를 재인식하여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학회지의 철학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최근 3년간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향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방향 및 철학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대상자를 분석한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분류한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를 이용하여 연구영역별 주제를 분류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해보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논문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총 103편이다.

2. 측정변수

대상논문에서 측정된 변수를 보면, 해당논문의 연구대상자 및 연구방법론과 연구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는 발달단계 건강문제, 질환별로 보았으며, 연구방법론은 연구방법, 연구설계, 표본추출, 자료수집방법, 통계분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영역의 분석은 Yeom과 Park(2005)이 사용한 8개 영역을 참조하였으나, 자료정리시 추가영역이 발생하여 인구학적 영역, 건강관련 개념 영역, 건강행위 영역, 성관련영역, 질환 영역, 간호관련 용어 영역, 생활

사건 영역, 연구방법 영역, 그리고 치료적 행위 영역으로 총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절차

논문 분석에 앞서 본 연구팀의 논의를 거쳐 연구대상자 및 연구방법론과 연구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하기로 결정하고

조사형식 틀을 구성하였다. 이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출판 위원회 5인이 결정된 조사 형식에 따라 해당년도의 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체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해당변수별로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Table 1>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N=103)

Category	Characteristics	n	Subgroup n(%)
Women	Elderly women	4	30(27.8)
	Elderly(men & women)	1	
	Middle-aged women	3	
	Adult women	3	
	Community-dwelling women(40-69 yrs)	12	
	Married women(30-59 yrs)	3	
	Unmarried women	3	
	Married working women	1	
Pre-, peri-, and postnatal women	Pregnant women	7	25(23.2)
	Pregnant couple	1	
	Women with labor	6	
	Postpartum mother	9	
	Primipara's husband	1	
	Postpartum care	1	
College students	Obese women student	1	13(12.0)
	RN-BSN student	2	
	Nursing department student	2	
	Women college student	1	
	College student(male and female)	7	
High school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Smoking student	1	7(6.49)
	High school student(male and female)	1	
	Teenage girl(middle and high school)	2	
	Middle school girl	1	
	High school boy	1	
	Elementary student(male and female)	1	
People who have chronic disease	Type II diabetic patients(male & female)	2	5(4.63)
	Mother of child who has hemophilia	2	
	Elderly women with osteoarthritis	1	
People who have reproductive disease	Gynecological disease	1	20(18.5)
	Premenstrual syndrome	1	
	Hysterectomy	1	
	Gynecological surgery with abdominal incision	4	
	Gynecological cancer	7	
	Family of women with gynecological Ca	1	
	Breast cancer	3	
	Infertile women with IVF failure	2	
People with STD*	HIV infection	1	1(0.93)
Health care professionals	Home care nurse	1	5(4.63)
	Operating room RN or gynecological RN	3	
	Obstetrics and Gynecology Dr.	1	
Others	Clinical practicum- curriculum, content, etc	1	3(2.78)
	Literature review	1	
	Other	1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1. 연구대상자 및 연구방법론

1) 연구대상자 분류

2004-2006년 3년간의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실린 총 103편에 대한 논문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를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건강한 성인여성이 30편(27.8%), 임산부가 25편(23.2%), 대학생이 13편(12.0%), 초중고등학생이 7편(6.49%) 있었다.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선택한 논문의 경우, 생식기 질환자 대상이 20편(1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당뇨병과 골관절염을 가진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5편(4.63%)이었으며, 성전파성감염자는 1편(0.93%)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대상자를 종합하여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대상자인 경우가 79편(7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성이 대상자인 경우는 3편(2.9%), 남녀 모두가 대상자인 경우가 13편(12.6%)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로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5편), 학교실습교육, 문헌 등(3편)이 있었다<Table 1>.

2) 논문의 유형

게재된 논문의 유형을 보면 일반논문이 74편(7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구비 수혜를 밝힌 논문이 28편(27.2%)였으며, 학위논문임을 밝힌 논문은 1편(0.97%)에 불과하였다<Table 2>.

<Table 2> Type of research (N=103)

Category	n	%
Thesis or dissertation	1	0.97
Funded research	28	27.18
General research	74	71.84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전반적으로 양적연구가 91편(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적연구는 7편(6.8%)으로 나타났다. 표본추출 방법은 임의 표출법이 84편(82.4%)으로 가장 많았고, 의도표출법이 6편(5.88%), 집락 표출법이 4편(3.92%), 눈덩이 표출법이 3편(2.94%)이었다. 연구설계는 양적 연구만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연구설계가 63편(69.2%)으로 과반수를 넘었고, 실험연구설계는 26편(28.6%)이었고, 모두 유사실험설계에 속하였다. 2차분석한 논문이 1편, 설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논문이 1편 있었다. 자료수집 방법에서는 질문지법이 80건(6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면접법이 15건(13.0%), 생리적 측정이 9건(7.83%)에 달하였다<Table 3>.

<Table 3> Research methodology

Category	Characteristics	n	%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91	88.34
	Qualitative research	7	6.79
	Literature review and others	5	4.85
Sampling	Convenience sampling	84	82.35
	Purposive sampling	6	5.88
	Cluster sampling	4	3.92
	Snowball sampling	3	2.94
	Quota sampling	1	0.98
	Random sampling	1	0.98
	Other	2	1.96
	Not applicable	1	0.98
Research design (n=91)	Survey design	63	69.23
	Experimental design	26	28.57
	Secondary analysis	1	1.00
	No comments	1	1.00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	80	69.57
	Interview	15	13.04
	Physiologic measure	9	7.83
	Observation	4	3.48
	Q-methodology	2	1.74
	Others	5	4.35

<Table 4> Data analysis

Item	Category	n	%
Data analysis (n=263)*	t-test(paired t- test included)	61	23.19
	Descriptive statistics	58	22.05
	1-way/2-way ANOVA, Ancova	40	15.21
	Correlation	39	14.83
	Chi-square	29	11.03
	Repeated measure ANOVA, Multivariate ANOVA	12	4.56
	Regression(simple, multiple, hierarchical)	9	3.42
	Non-parametric test (Mann-whitney U-test)	6	2.28
	Factor analysis	4	1.52
	Not applicable	5	1.90
Reliability	Reported	83	80.58
	Not reported	8	7.77
	Not applicable	12	11.65

* multiple response

4) 통계기법

자료분석에 사용한 통계기법은 개별 논문마다 다양한 통계기법이 사용되었으므로 각 통계기법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t-검정이 61건(23.2%), 기술통계가 58건(22.1%)으로 나타났고, 일변량 ANOVA 분석이 40건(15.2%), 상관분석이 39건(14.8%), 카이제곱 검정이 29건(11.0%)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변량 ANOVA 분석이 12건(4.56%), 회귀분석이 9건(3.42%), 비모수 검정이 6건(2.28%)에 달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보고는 83편(80.6%)에서 제시되었으며 8편(7.77%)은 보고되지 않았다<Table 4>.

5) 기타 연구관련 사항

중재연구는 총 26편이 보고되었는데, 이중 프로그램 개발이 5편(19.2%),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21편(80.8%)이었다. 이론적 기틀을 밝힌 연구는 3편(2.91%)에 불과하여 대부분 논문에서 이론적 기틀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상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를 살펴보면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을 통해 윤리적 고려를 한 경우는 65편(63.1%), 고려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32편(31.1%)이었다.

또 투고규정에서 결과에 기초한 제언을 제시한 경우는 98편(96.1%)으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제시되었으나, 4편(3.92%)에서는 제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어를 이용한 연구영역의 분석

2004년-2006년 3년간 12권의 학회지에 실린 주요어에 대한 빈도 분석을 통해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총 369개의 주요어를 9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도를 계산하였다. 건강관련 개념 영역이 181개로 49.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인구학적 영역은 56개(15.2%), 건강행위(중재)영역은 48개(13.0%)로 나타났다. 성관련 영역은 21개(5.7%), 질환 영역이 18개(4.9%), 간호 관련 용어는 16개(4.3%), 생활사건 영역이 13개(3.5%), 연구방법이 12개(3.4%), 그리고 치료적 행위가 7개(1.9%)로 나타났다.

1) 인구학적 영역

인구학적 영역의 주요어는 56개(15.2%)였고, 여성이 32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어머니(임산부 포함)가 10개, 학생이 7개 사용되었다. 그 외 주요어로 질환자를 명명한 경우가 2개, 간호사를 명명한 경우가 2개였다. 기타 대상자로는 간호교육 기관, 영아, 남편, 임신부부, 가족 및 부모였다<Table 5>.

2) 건강행위(중재) 영역

건강행위(중재) 영역은 48개(13.0%)가 언급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된 영역은 보완-대체요법으로 13개 사용되었고,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행위가 9개, 운동이 8개, 교육이 5개, 건강증진 행위가 5개, 모유수유 영역이 5개, 출산관련이 3개로 나타

<Table 5> Demographic domain by analyzing key word (N=56)

Domain	Topic	Key word(f)
Demographic	Women(n=32)	women(13), middle aged women(8), elderly women(4), pregnant women(3), married working woman(1), working women(1), adults(1), female(1)
	(To be) Mother(n=10)	unmarried mother(3), mother(3), primipara(2), primigravida(1), unmarried pregnant women(1)
	Student(n=7)	university student(2), college student(1), nursing students(1), student(1), high school students(1), early adolescent(1)
	Patient(n=2)	mastectomy patients(2)
	Nurse(n=2)	home care nurse(1), operating room nurse(1)
	Others(n=6)	infant(1), husband(1), pregnant couple(1), family(1), parent(1), nursing schools(1)

<Table 6> Health behavior(intervention) domain by analyzing key word (N=48)

Domain	Topic	Key word(f)
Health behavior (intervention)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n=13)	aromatherapy(3), qigong(2), self-hand massage(2), foot reflex zone massage(1), Koryo hand therapy(1), moxibustion(1), music(1), non-pharmacological therapy(1), touch(1)
	Preventive behavior from disease(n=9)	breast self-examination(3), contraception behavior(3), breast cancer screening(1), mammography(1), repeat screening(1)
	Exercise(n=8)	exercise(6), weight reduction practice(1), pressure of pelvic muscle contraction(1)
	Education(n=5)	health education(2), internet diabetic education(2), internet(1)
	Health promoting behaviors(n=5)	health promoting behaviors(2),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1), internal working model(1), support group(1)
	Breast-feeding(n=5)	breastfeeding(4), initiation of breastfeeding(1)
	Childbirth(n=3)	Lamaze childbirth(1), prenatal care behaviors(1), prenatal education(1)

났다<Table 6>.

3) 건강관련개념 영역

건강관련 개념 영역은 전체 주요어 중 181개(49.1%)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일반적인 건강개념이 20개

(11.1%), 생리적 건강개념이 63개(34.8%), 사회심리적 건강개념이 98개(54.1%)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인 건강개념에서는 지식이 7회, 건강상태가 4회, 건강이 2회 언급되었다. 생리적 건강개념에서는 분만통과 통증이 4회, 일상생활수행도, 피로, 월경관련 신체증상, 비만, 혈청 지질이 3회, 체성분, 호흡, 안

<Table 7> Health related domain by analyzing key word

(N=181)

Domain	Topic	Key words(f)
Health related concept	General(n=20)	knowledge(7), health status(4), health(2), employment(1), importance(1), regularity(1), screening(1), stage of change(1), system(1), trends(1)
	Physiologic(n=63)	labor pain(pain)(4), ADL(IADL)(3), fatigue(3), menstruation related(menstrual symptoms, perimenstrual symptoms pattern, PMS)(3), obesity(3), serum lipids(total cholesterol)(3)
		body composition(body fat)(2), breathing(2), comfort(discomfort)(2), domestic violence(violence)(2), functional status(2), glucose(2), physical symptom(2)
	Psychosocial(n=98)	back pain(1), daily cigarette use(1), dietary factor(1), disability(1), dysmenorrhea(1), glycosylated hemoglobin(1), health risk(1), hwabyung(1), immune function(1), menopausal symptom(1), nosocomial infection(1), obesity index(1), physical fitness(1), premature labor(1), rape(1), reproductive health(1), risk factor(1), serum leptin(1), sleeping disturbance(1), smoking craving(1), subjective distress(1), symptom distress(1), symptom(1), urinary incontinence(1), uterine contraction(1), waist to hip ratio(1)
depression(12), anxiety, state anxiety(7), stress(5), quality of life(4), self efficacy(4) attitude(2), competence(2), coping distress(2), experience(2), job satisfaction(2), life experiences perception(2), performance(2), role(2), satisfaction(2), self confidence(2), support(2), uncertainty(2)		

<Table 8> Other research domains by analyzing key word

Domain	Topic	Key word(f)
Sex related (n=21)		sexual knowledge(3), sex role(2), sexual attitude(2), sexual experience(2), sexuality(2), sexual functioning(dysfunction)(2), sex experience(1), sex(1), sex/gender difference(1), sexual autonomy(1), sexual behavior(1), sexual consciousness(1), sexual distress(1), sexual health(1)
Disease (n=18)	Reproductive Dz(n=13)	gynecologic cancer(4), cervical cancer(2), breast cancer(2), ovarian cancer(1), HIV(1), infertility(1), endometriosis(1), breast neoplasm(1)
	Chronic Dz(n=5)	type 2 diabetes(2), hemophilia(1), osteoporosis(1), osteoarthritis(1)
Nursing-related (n=16)		lactation consultant(2), advanced practice nursing(1), certified nurse midwives(1), clinical practice(1), CNS(1), counselor(1), Korean nursing(1), maternal-child health centers(1), maternity nursing practice(1), maternity nursing(1), NP(1), perinatal nurse practitioners(1), type of nurse staffing(1), WHNP(1), women's health(1)
Life event (n=13)		postpartum(puerperium)(3), pregnancy(3), menopause(2), childbirth(1), climacteric(1), menarche(1), postmenopause(1), menstruation(1)
Research method (n=12)		validity(2), PBL(problem-based learning) (2), module development(2), concept analysis(1), critical pathway(1), curriculum(1), diet analysis(1), evaluation studies(1), grounded theory(1), instrument development(1), reliability(1)
Therapeutic medical intervention(n=7)		patient controlled analgesia(2), chemotherapy(1), fertilization in vitro(1), hysterectomy(1), surgery(1), uterine artery embolization(1)

위, 기능상태, 혈당, 신체증상이 2회 언급되었다. 사회심리적 영역에서는 우울이 12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불안이 7회, 스트레스가 5회, 삶의 질, 자기 효능감이 4회씩 사용되었다. 2회 언급된 주요어는 태도, 능력, 대처, 고통, 경험, 직업만족도, 삶의 경험, 지각, 수행, 역할, 만족, 자신감, 지지, 및 불확실성이었다<Table 7>.

4) 기타 연구영역

성관련 영역에서 주요어를 사용한 경우는 21개(5.7%)가 언급되었고, 성 지식 3개, 성역할, 성태도, 성경험, 성성, 성기능이 2회씩 사용되었다. 질환영역에서는 주요어 사용빈도가 18개(4.9%)개였고, 부인과 암, 유방암 등 생식기계 질환이 13개로 가장 많았고, 일반 질환이 5개로 나타났다. 생활사건영역에서는 주요어가 13개(3.5%) 언급되었고, 이중 임신, 산욕기, 폐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기타에는 출산, 갱년기, 초경, 폐경후기, 월경이 있었다.

간호관련 용어 영역에서는 16개(4.3%)로 나타났고, 모성 및 여성건강 전문간호사로서의 다양한 역할명칭이 제시되었다. 연구방법 영역에는 12개(3.3%)의 주요어가 사용되었고, 치료적 행위영역은 7개(1.9%)의 주요어가 사용되었다<Table 8>.

논 의

최근 3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출판된 103편의 연구문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여성건강의 주제와 연구경향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학회지가 타 학회지와 차별화되어 추구할 연구영역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논문에서 초점이 된 연구대상자 중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지나지 않았고 10대 여학생으로부터 중년 및 노년기 여성까지 폭넓은 대상을 다룬 결과는 그간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이 임신과 분만에 국한되었던 관점으로부터 여성의 생의 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이슈는 물론 증가하는 여성 암환자 또는 여성 생식기질환자에 대해서도 연구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대 여성 혹은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증가는 성주제와 관련하여 여성건강의 중요한 대상 집단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건강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을 정의함에 있어 발달주기에 따라 성인 또는 중년여성 등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연령기준이 각기 상이할 뿐 아니라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 미혼으로 구분할 경우에도 임의의 (예를 들면 30세부터 59세)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점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연구목적과 문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성(性)과 관련된 개념이나 변수 등이 여전히 결혼 상태에 따라 적용될 것인지,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여대생이 미혼이라고 볼 때 미혼여성에 포함된 여대생과 특정 집단으로서의 여대생 간에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는 하는 점들이다. 예를 들어 연구대상 모집의 편의성 때문에 여대생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좀 더 다양한 여성대상자와 건강문제가 앞으로의 연구에서 도출되어야 하겠고 여성건강의 핵심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대상자와 선정기준이 타당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설계에서는 조사연구가 전체 논문 편수의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69%)로 상당히 많았지만, 유사실험연구도 약 29%를 차지하는 결과는 고무적이다. 연구설계가 연구목적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지만 소수의 질적 연구방법을 제외하고는 여성건강 연구영역에서 다양한 설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건강문제를 개인적 상황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사례연구나 한국사회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들의 건강이슈와 변화들을 조망하는 역사적 연구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문제나 간호중재 효과의 단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추이하는 종단적 연구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추후 연구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볼 때 연구자들이 개발한 간호중재 프로그램들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연구들은 이들 중재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적 연구에서도 체계적 표본추출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일회성 편의추출 방법(82%)을 사용한 점은 결국 연구결과에 대표성과 설명력, 또는 표준화에 제한을 초래한다. 편의추출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뿐 아니라 소규모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앞으로는 multisite, multicenter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여성건강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우리나라 여성건강의 지표를 제시해 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분석연구의 약 70%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질문지에 포함된 측정도구를 진술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진술과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타당도에 대한 진술은 결여된 논문이 많은데 원 도구의 타당도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된 것인지, 자신의 연구영역이나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내적일관성이 주를 이룬 신뢰도 역시 이전 연구들로부터 제시된 신뢰도의 범위와 함께 각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신뢰도에, 생리적 지표 측정, 기계계측, 관찰법 등의 근거가 필수적으로 진술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료수집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점은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이다. 이는 수년전부터 국내 학술지의 기준으

로 강조되어 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석된 논문의 3분의 1 정도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진술하지 않았던 점은, 논문 지면상 기록을 생략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이에 연구자들이 국제 수준에 준하는 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고려사항을 숙지하고 앞으로의 심사기준에서 역시 보강되어야 할 점이다.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분석방법이 결정되므로 대부분 서술적 조사연구였던 연구들에서는 기술통계를(descriptive statistics) 비롯해 비교적 일차수준의 통계기법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결과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소요하는 부분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하는 표와 이 기술통계를 반복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연구에 따라 동질성 검증 등을 위해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는 수준으로만 제시하는 편이 연구논문이 목적인 연구결과 진술과 논문의 간결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다. 분석논문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나 연구결과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인구학적,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맥락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반적 특성만을 수집하고 그 특성들의 구분을 왜 해야 하는지, 이러한 변수는 결과변수와 어떻게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하는지를 (예, 종교의 종류별 분포나 백만원 단위의 월수입 분류)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의 틀을 계획할 때부터 연구변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양적, 질적 연구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론적 기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하지 않았던 점은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데, 조사연구 및 중재연구에서 특히 다양한 심리적 개념과 변수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뒷받침이 결여된 논문은 그 결과의 타당성과 의미에 제한을 갖게 된다. 이는 연구를 통해 간호학적 지식체를 구축하겠다는 학문적 기여도 차원에서 그 가치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논문 심사절차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가 견고함을 인정받고 또한 타 연구자들에게 신뢰할만한 연구결과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 자신이 체계적인 틀을 갖춘 논문을 보고하는 경향이 구축되어야 하겠고 동시에 추후 논문 심사기준에서 이론적 기틀의 필요성과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어 보강되어야 하겠다.

한편 각 연구자들이 선정한 논문의 주요어(key words)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369개 주요어 중 건강관련 개념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가장 높은 빈도는 depression(11회), knowledge(7회), anxiety(7회), 그리고 stress(5회)로 나타났으며 이외 대부분의 주요어는 1번씩만 제시되어 주요어의 빈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열되었다. 그러나 주요어 중 상당수가 MeSH(Medical Subject Headings) 검색어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며 예를 들면 experience, life experiences, satisfaction, emotional, preparation, perception, present, system, trends, preference, risk factor 등과 같이 일반적 의미로 쓰는 단어를 주요어로 선정한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eong, Ahn과 Cho(2005)의 연구에서도 국내 일 간호학술지의 주요어의 MeSH 일치도가 36.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주요어의 인구학적 분류에서도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 예를 들면 women, adults, female 등의 사용이나 mother, student, college student, university student 등이 쓰여 주요어로서 타당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는 각 논문이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인용, 재인용되는 수단이기도 하거니와 연구의 핵심을 표방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국제적 검색기준에 맞는 용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내연구자들의 주의를 요망될 뿐 아니라 논문 심사 및 출판과정에서도 재차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Yeom과 Park(2005)의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에 비해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주요 여성 집단으로 부각되는 미혼 여성과 일하는 여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두드러진 사항은 건강행위(중재)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이 연구주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예방적 건강행위, 건강증진행위, 그리고 운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분만 및 모유수유 관련 연구는 8편에 그쳤다는 점이다. 저출산 추세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여성대상 연구의 동향은 매우 반전되었으나 출산관련 연구는 여성건강의 핵심 분야이므로 연구의 유행에 따라 이를 도외시하기 보다는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 보건정책의 변화에 상응하는 연구 분야를 개발하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관련 개념에서는 역시 사회심리적 개념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앞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이들이 공식적인 주요어로 재정리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대상 및 인구학적 영역의 분류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건강학술지로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분류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우는 전체 논문 편수의 약 1/4에 그쳤는데 이는 국가단체의 연구비 수혜를 받은 경우 그 연구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논문출간을 요청하기 때문에 등재후보지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는 상대적으로 논문투고 사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전문학회지들이 대부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정 또는 우수 국제학술지와 동등한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게재 논문의 수준과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본 학회지가 다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의 수준에는 이르렀으나 여성건강영역의 우수한 연구들을 확보하고 이를 공유하는 장(場)으로서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 학회지가 학진 등재 학술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연구자들이 투고 규정 및 게재 절차를 통해 제시된 기준을 준수하고 세심한 부분까지도 오류가 없는 질적 논문을 제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았다. 지난 2004~2006년에 발간된 학회지 총 12권에 실린 103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자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76%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여러 건강관련문제를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유행성 연구보다는 매우 다양한 주제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학회가 추구하는 철학에 상응하는 논문 중심으로 출판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주제어를 중심으로 연구영역을 분류하는 것은 학회지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오히려 하부 주제를 보는 것이 연구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큰 영역 중심의 분류보다는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해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Cho, K. S., Hyun, M. S., & Cho, D. S. (2006). Analysis of review contents of the submitted papers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Focus: The submitted papers in 2003 -. *J Korean Acad Nurs*, 36(1), 197-205.
- Jeong, G. H., Ahn, Y. M., & Cho, D. S. (2005). Coincidence analysis of key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with MeSH (2003-2005). *J Korean Acad Nurs*, 35(7), 1420-1425.
- Koh, H. J., Jeong, G. H., Park, K. M., & Kim, H. Y. (1997). Recent trends in the nursing research on the women's health. *Korean J Women Health Nurs*, 3(2), 205-214.
- Koh, M. S., Koh, H. C., Kim, H. S., Park, M. W., & Lee, K. H. (1992). Trends in Korean nursing research related to women's health. *Nurs Sci*, 4, 5-16.
- Lee, S. H., & Park, Y. S. (1998). Analysis of published nursing research on women's health. 1988-1997, *Korean J Women Health Nurs*, 4(1), 105-120.
- Yeoum, S. G., & Park, C. S. (2005). An analysis of articles about women's health. *Korean J women Health Nurs*, 11(4), 333-346.